

여호와께서는
우리의 죄악을
그에게
다
사기셨도다

이
것은
두 눈 밖에 없다.
자기를 죄인이라고
생각하고 있는 의인들과
자기를 의인이라고
생각하고 있는 죄인들.

- 파스칼의 포앙세다 -

남영이사야 53장 6절

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

고전 도서명	성서 (The Bible) <예수>
작품 설명	1. "예수" 글자로 가시면류관의 사랑을 표현하였다. 2.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을 표현하였다. 3. 인간의 죄를 예수에게 담당케 하신 성경 말씀을 표현하였다. 4. 두 종류의 인간 중 어느쪽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파스칼의 글을 표현하였다.